

“국민 삶의 질 개선 미흡… 문제 해결 시급”

文대통령, 국가 재정 자금보다 과감한 역할 요구 강조
 “재정수지 단기적 악화 가능성…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경기 활력 제고 필요… 국회가 추경 신속하게 논의하길
 적극 재정 공감 얻기 위해서는 지출 구조조정도 필수”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재정이 지금보다 더 과감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사에서 열린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곳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지만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국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 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며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에 발이 아니라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의 살림살이도 가계처럼 경제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야 할 때가 있고 건전성에 중점을 뒀던 곳을 채워야 할 때도 있다”며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 후 2년간 이동수당, 차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사회투자를 늘리고, 제2벤처법 확산 전략과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 등을 통해 혁신 투자를 확대한 점을 소개했다.

이같은 투자를 통해 벤처 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근로자들의 소득과 삶의 질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별과 고용시장 밖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지역별 특화 정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 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며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오히려 단기 재정 지출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면서 1분기 성장이 좋지 못했다”며 “경제는 삼더 라는 말이 있듯이 민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을러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리에게 추경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권고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

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또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당·정·국이 설득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미래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출산을 감소시키고 고령화는 경제활력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결국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저출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과 별도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정혁신 방안까지 함께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출 구조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 기초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필요한 곳에 쓰되, 불필요한 낭비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제 활력 둔화와 재정분권에 따라 내년도 세입 여건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이 적극적

인 역할을 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별로 관성에 따라 편성되거나 수혜 계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속되는 사업 등을 원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주시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청와대, 여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년 국정 성과와 재정 운용을 평가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책 과제 및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오늘만큼은 자신이 속한 부처의 장관으로서가 아닌 국무위원의 자세로 논의에 임해 주길 바란다. 부처의 이해를 넘어 국가와 국민을 기준으로 논의하고 합의를 이뤄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여당에 대해서도 “국민을 대표해 활발히 의견을 내주시고 앞으로 국회에서도 잘 뒷받침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

LX, 부패 취약 분야 종사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정부 부패방지시책평가 3년 연속 1등급 달성에 빛나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가 차별화된 사전 교육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LX 감사실(감사 류근태)은 16일 전북혁신도시 소재 본사 대강당에서 전국 12개 지역본부와 본사 인사, 회계 담당직원 약8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청렴교육을 했다.

교육은 LX 내 인사나 회계 등 부패 취약분야 종사자에 맞는 맞춤형 사전 부패예방 청렴교육을 국민권익위원회 장정아 청렴전문강사가 직접 설계했다.

또한,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공익신고 등 청렴인지도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청렴 끝판왕 프로그램을 교육생이 직접 참여하도록 프로그램 도입해 교육의 차별화를 꾀했다.

류근태 상임감사는 “부패방지법 제정(2011) 20주년 맞이하는 의미를 담아,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선다”며 “부패예방을 위한 선제적 노력과 청렴교육을 통해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직원들부터 솔선수범하는 투명한 조직문화를 통해 최고의 청렴기관으로 우뚝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 감사를 토대로 삼고 있는 LX는 그간 정부가 주관하는 부패방지시책평가 3년 연속 1등급 달성과 함께 공공기관 청렴도 4년 연속 2등급 달성, 감사원 자체감사 활동 심사 A등급 거양 등 윤리경영의 모범적인 공공기관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김영태 기자



농신보 남원센터, 농촌 일손 돕기로 ‘구슬땀’

농협중앙회 농신보남원센터(센터장 원흥연)는 지난 15일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남원 산내면 소재 사과 농가에서 사과작업 등 농촌 일손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일손 돕기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촌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 전 직원이 합심하여 사무소 단위로 개최하는 복합 체육행사를 농촌일손돕기로 대체함으로써 더 뜻 깊은 농촌봉사 활동이 됐다.

농신보 남원센터 직원들은 사과농가 봉사활동 실시 후 농신보 보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해 관내 농민과 간담회도 했다.

원흥연 센터장은 “농업·농촌은 우리 삶의 근간이며, 농협이 존재하는 이유”라며 “농심이 천심이라는 마음으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가소득 5,000만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일손 돕기, 각종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의 우수 농특산물 저렴한 가격으로 한자리에!

전북농협, 오늘 군산 근대문화역사거리서 삼락농정 직거래 장터 개장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오늘부터 19일까지 3일간 군산시 근대문화역사거리에서 시군 추천 농특산물, 도지사 인증 마을기업 제품, 농촌융복합산업 상품 등 다양한 상품들로 ‘삼락농정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직거래장터는 전북관내 14개 시군에

서 선정된 대표 농산물 및 농특산 가공품(장아찌, 건조과일, 젓갈류, 참기름 등)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가정의 달을 맞아 군산 근대화 거리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북의 맛과 멋을 알리는 푸 집한 사은품 증정 등 신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삼락농정 직거래장터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 만남의 장’으로 전북의 안전한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생하며 동행하는 장터’로, 그동안 전주지역 위주로 열리던 것을 이번에는 침체된 군산경제를 살리고자 군산시 근대문화역사거리에서 하게 됐다.

전북농협은 5월 초부터 현수막, 전단지 홍보 및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전북농협 - 전주보호관찰소, 주거환경개선 봉사 펼쳐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형석)는 16일 완산구 용머리로 소재 희망 나눔의 집에서 도배, 장판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봉사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봉사는 법무부와 농협중앙회의 업무 협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봉사대상자 농촌 일손 돕기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전북농협과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사

회봉사대상자와 함께 저소득계층인 희망 나눔의 집 내부 오래된 벽지를 교체하고 장판을 새로 까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전북농협은 올해 보호관찰소와 함께 ‘다양한 재능봉사와 농번기 농촌일손 돕기에 3,000여명이 참여하여 국민의 농협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영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